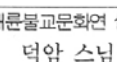


“정신문화 함양의 터전 마련”

포교·교육사업 전개, 태고집 발간도

“불교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포교사업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설립 덕암 스님

사단법인 대륜 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한 덕암스님(전 태고종 종정)의 첫 소감이다. 모든 종단 종가를 초월한 불법 연구를 통한 계층의 생활화, 사회화, 호국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정도를 실현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최우선사업으로 태고보우국사의 ‘태고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향후 대륜불교 문화원은 출판사업을 시작으로 불교 정신문화강화 국제간의 불교문

화교류사업 불교지도자 육성 및 연수사업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층에 삼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수행이라고 말하는 덕암스님은 “대륜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전 문도들과 함께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을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륜스님(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건강한 佛心 펴는 도량 일굴 터”

수영장등 29개 강좌 3천5백명 수용... 회원 신청 쇄도

양천구로부터 위탁운영을 허가받아 그 운영을 전국비구니회가 담당하게 되면서 지난 4월 관장을 선임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의 수영장, 에어로빅실, 헬스실, 사우나실, 소체육관, 대체육관, 탁구장 등을 갖추고 29개 강좌 70개반 3천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센터다.

4월부터 본격적인 개관준비를 시작, 짧은 기간동안 준비하느라 아직 미비한 점도 많다는 스님은 “모든 직원이 일심으로 휴일도 있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관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21일에는 체육센터를 이용하려는 2만4천여명의 주민들이 물려와 가점수를 신청, 구청과 경찰서 은행의

도움아래 컴퓨터로 회원추첨을 완료했다. “유아수영교실, 효자수영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내집 드나들 듯 마음놓고 이용하는 지역문화체육공간으로 일궈갈 것”이라는 스님은 이와함께 지역선수발굴, 양성으로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양천구민의 자랑거리로 만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오랫동안 승가사에서 군 포교와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도 힘써온 상륜스님은 “천 번생각하는 것이 한번 행함만 하지 못하다”는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며 지역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 재미있고 유익한 체육센터 운영을 여법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내일을 여는 불자



청교련 기획 간사 김남녀씨

“각각적이고 강한 개성을 표출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칫 따분하고 지루함을 줄 수 있는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문화의 개발이말로 그들에게 불교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사랑을 키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 14기 17대 학생회장(삼익분과) 출신으로, 청교련 기획간사의 소임을 아무렇게 해내고 있는 프로그래머 김남녀씨.

10여년전 청교련과의 인연으로 대학졸업후 빌다는 갈등없이 청소년 교화사업에 뛰어들 김씨는 청교련 후배들에게는 데랄 수 없는 친근한 선배이자 지도자다.

청소년 놀이문화 개발의 주역

불교적품, 국악캠프등 30여 기획프로 제작

“물론 교리공부도 중요하죠. 하지만 신세대들에게 그들의 개성과 미래를 맘껏 표현할 수 있는 마당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김씨가 기획을 보조하고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30여개에 달한다. 국악캠프,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 악물남용 예방캠페인등. 김씨가 개발하고 실행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갖게 될 수 있는 절호의 장이다. 그러하기에 그 30여개의 프로그램은 이제 정착이 되고 현실화해 타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교련의 조달현국장은 김씨를 ‘청소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불교계의 일꾼’이라고 귀띔한다.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언니처럼 누나처럼 대화하기를 자처하는 김씨는 “교계가 청소년 포교사업에 너무 무관심한것 같습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자, 주인입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맘껏 뛰어놀고, 학습하고, 꿈을 펼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되야 합니다”고 말했다.

청소년 교화·선도에 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김남녀씨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불교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바쁜 손길을 오늘도 역시 늦추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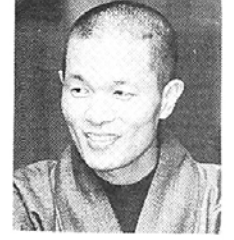
(도광선 기자)

미국 유학 떠난 현능 스님

서울 상계동 아파트단지에서 메마른 도시인들의 가슴을 불빛의 단비로 축축히 적셔주었던 박현능스님(전 사천왕사 주지)이 지난 15일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지난 6년간 성공적인 포교당 운영으로 불교대중화를 이끌어온 장본인의 한사람이기도 한 스님은 “한국불교도 이제 환경 자체가 변해야 할 시기에 접해있다”고 말하고 “세계종교로서 불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국불교가 너무 고립되지는 않았나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

내일 위해 공부 결심 ‘생명의 저울’ 등 펴내



라 생각, 내 자신부터 변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출국에 앞서 지난 13일 그동안의 법문을 모아 수필형식으로 담은 ‘생명의 저울’ 출판기념회 및 송별회를 가지기도 했다. 스님은 떠나겠지만 사천왕사에서 스님이 실행해온 불교의식의 한글화 문제를 정리한 ‘한글 불교의식집’(가칭)과 불교입문자들을 위한 번역서 ‘불교를 읽는법’(가칭) 등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은)



교차로

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차의 효과와 다도에 관한 교양강좌를 실시했다.

마산 금강정토사서 법문

서암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오는 6월10일 마산 금강정토사 수호법당이 주최하는 초청법회에 참석 법문을 예정했다.

‘시민단체...’ 발대식 참석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오후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시민단체공동 정책캠페인 추진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 “6. 27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법학강의

현해스님(월경사 주지)은 오는 6월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한국불교발전연구원에서 법학 강의를 강의한다.

차의 효능·다도 교양 강좌

지허스님(선암사 주지)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전남도에

이화여대 가정관서 법문

법현스님(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 회장)은 지난 16일 이화여대 가정관에서 열린 동대학 불교학술회 초청강연서 ‘원죄인가 업인가’란 불교의 인간관을 주제로 법문했다.

‘열린 종교인들의 모임’ 발족

각인스님은 지난 27일 정식 발족한 종교일치운동을 위해 젊은 종교인들로 구성된 ‘열린 종교인들의 모임’에 참가했다.

동문연론·연예인 간담회

송석구교수(동국대 총장)는 오는 30일 오후 5시 타워호텔넥스트에서 동문연예인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6월7일 오후 7시 프라자 호텔에서 동문연예인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철학회 학술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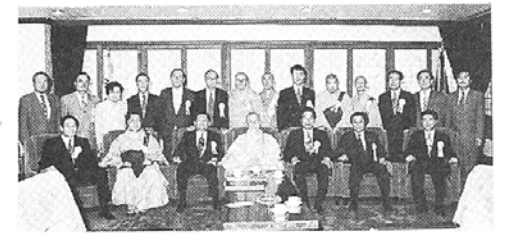
원외범명예교수(인도철학회장)는 지난 24일 동국대에서 ‘제5회 인도철학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알라식설과 무의식설에 대한 비교 고찰:유식불교와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등 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자연호보·인성교화 대법회

목정배이사장(대한불교 법사회)은 6월4일 김천 4시에서 자연호보 및 인성교화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는 전국 25개 포교단체 5백여명의 법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재연구소 학술회의

장경호소장(문화재연구소)은 지난 24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해의소재 우리역사 관련 문화유적의 현황과 보존’ 학술회의를 가졌다.



민족화합통일 염원 대법회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 법해스님)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민족화합통일염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기택 민주

‘해방후 노동구조...’ 발표

이각범교수(서울대)는 지난 26일 열린 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학회 공동주최 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해방후 노동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탄허종사 11주 추모법회

이봉모씨(전 국회의원)는 지난 22일 오대산 월경사에서 봉행된 탄허대중사 11주기 추모제에 참석 헌양했다. 이 전 의원은 탄허종사의 속가제자로 임직할 때까지 탄허종사를 모셨었다.

회갑기념 출판기념회

오홍석박사(전 동국대교수)는 회갑을 맞아 30일 오후 6시 동국대 교정앞에서 ‘한국의 농어촌과 환경연구’ ‘한동해권 시간과 공간의 교감’ 두 권의 논문집 발간 출판기념회 및 논문정정식을 갖는다.

도선사 신도회 초대회장에

김성호씨(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새로 구성된 도선사 신도회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게시판

- ▲불교경전 한문교실=맑고 향기롭게부산, 경남도민(회장 이흥교)에서는 무료 불교경전 한문교실을 열고 불자들을 기다린다. (051)867-8606~7
- ▲정기법회=부산불교거사협회 30일 오후 7시 통도사 부산 포교원에서 ‘참다운 수행’을 주제로 정기월례법회를 개최한다.
- ▲무료법률상담=개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명태)은 매일 넷째주 월요일마다 상담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051)893-5034
- ▲한영우 기자(본사 취재1부)는 오는 6월4일 오후 1시 천안 목화예식장에서 장경희양을 신부모 맞아 화촉을 밝힌다. (0417)62-7217

1995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입생 (석사 및 연구과정, 관리자 과정)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 석사과정, 관리자과정
 -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 불교사, 예술사
 - 불교사회학과 : 사회복지학, 포교학
- 지원자격
 - 석사 및 연구과정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 수료자.
 - 관리자 과정 : 조계종의 대덕 법계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 원서교부 및 장소

95. 6. 1(목)~6. 15(목) 평일 09:00~17:00까지(토·일·공휴일은 제외)
- 전형일시 및 장소
 - 석사 및 연구과정 : 95. 6. 22(목) 14:00 불교대학원 교학부
 - 관리자과정 : 95. 6. 23(금) 13:00 불교대학원 교학부
- 전형방법
 - 석사 및 연구과정 : 석사과정 - 필기(영어·전공) 및 면접 /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관리자 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조계종제적승려, 공무원 및 교직원인 소정의 장학금 지급(승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해외 자매대학 유학 및 연수참가 기회부여
 - 구미를 비롯한 각종 자매교와 학술교류 및 상호방문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문의전화 : 260-3097, 3098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부)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수·강·안·내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 = 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사교과 =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형
 - 의전과 = 기초의식(도량서, 종승, 예불의) 상응의식(불공, 시식, 관육, 대령)
-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 = 삼화표의지, 불교의 계목
 - 경전강독 = 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 = 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 = 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통록 초
- 수업요령
 - ① 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 ② 수업료 = 2만 5천원
 - ③ 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립니다.
 -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 바람.

■문의처 : ☎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